

제 75 호

제 4 부활 주일

성소 주일

1974. 5. 5.

숲정이

발행인 김 영 일
 인쇄인 김 봉 희
 주 간 조 성 호
 편 집 한 상 갑

【성소주일】



사제양성 후원문제

성소 육성의 의무는 전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당하는 큰 고통중의 하나가 바로 성소 감소 문제입니다. 그러기에 요한 23제께서는 “사제 성소와 수도 성소 문제는 교황이 날마다 걱정하고 있다. 성소야말로 교황 기도의 숨소리로, 그 영혼의 간절한 소망이다.”(성소에 관한 제 1차 국제대회 연설 1961. 12. 6)하고 근심하셨습니다.

오늘날 물질 문명의 발달과 더불어 사회 정의는 망각되었고, 인간의 정신적, 영신적 가치관마저 마비되어 가는 현실은 그 어느때 보다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절실히 요구됩니다. 따라서 늘어나는 필요에 응할 수 있는 사제의 수는 너무도 부족합니다. 더구나 해마다 감소되는 사제 성소의 현황은 내일의 우리 교회를 결코 밝게만 내다 볼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현실이 과거보다 퇴보 되었다거나 미래의 전망이 밝지 않다고 해서 좌시 개탄만 하고 있어야 하겠습니까?

또 우리는 과연 뜻이 있는 청소년들을 개발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느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기꺼이 따를 수 있도록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반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 없는 교회가 존재할 수 없고, 사제 없는 교회는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사제란 누구를 위한 누구의 사제나 하는 문제는 자명한 것이다.

친애하는 교형 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사도 바오로께서 갈라디아인들에게 보낸 서간을 소개합니다. “성령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낙심하지 말고 꾸준히 선을 행합니다. 꾸준히 계속하노라면 거둬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회 있을 때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합니다.”(갈라디아 6.5~10)

이제 사제 양성 후원회를 창립함에 있어 우리는 첫째, 그들의 성화를 위하여 사제 성소 개발을 위한 열렬한 기도와 둘째 사제 양성을 위한 재정적 후원으로 영예의 회원이 되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우리의 사제요, 바로 나의 사제 한분이 탄생되기까지는 막대한 예산과 금액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외국 은인들의 원조에 의지해서 우리의 사제를 양성해 왔습니다. 언제까지나 남에게 의지하겠습니까? 이제 우리는 그 은인들께 감사하면서 우리의 사제를 우

리의 힘으로 양성합시다.

우리 교구 대부분의 신학생들은 가정 경제가 용이치 못한 실정입니다. 거기에서 성소 문제 자체에 어떠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과연 타산지적 일은 없는 것입니다. “성령에 심는 사람은 성령으로 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또 우리의 어려운 현실을 낙심 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하노라면 거둬들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선을 행해야 하는 우리에게 사제 양성 후원 문제는 바로 하느님 사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거룩한 일임을 다시 한번 생각 합시다.

여러분의 후원하심에 대하여 하느님께서 기꺼이 받아 주실 제물(필립비 4.11)이라고 말씀하시고, 또 여러분께서 하신 선행에 대해서는 “주님과 함께 항상 기뻐 하십시오. 거듭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무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필립비 4.4~6)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교형 자매 여러분,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실 본 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랑을 요구합니다.

- 1) 사제 성소를 위해 자주 기도한다.
- 2) 사제 성소 증가 위한 선행과 희생을 한다.
- 3) 지망자를 물색하고 성소 지도, 신부에게 연락한다
- 4) 매월 일정액 (다소 불문)의 회비를 납입한다.
- 5) 회원 증가를 위해 노력한다.

여러분께서 고대하시던 본 후원회의 가입은 본당 신부님께서 말씀 드릴 때 이루어 지겠습니다.

-사제양성 후원회 발기문에서-

* 숲정이 산책 *





친구(親口) : 입맞춤

박진량 신부

미사에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사제가 입당한 후에 성체께 절하고 나서 제대로 다아가서 그 위에 입맞추는 것을 볼 수 있다. 그것을 친구(親口)라고 한다.

이 입맞추는 행위는 이 때 뿐만이 아니다. 복음성경책에 입맞추는 것도 볼 수 있다. 또 요즈음에는 좀 달라졌으나 전에는 평화의 입맞춤이라는 것이 있었다고 한다.

이 외에도 성인(聖人)이나 복자(福者)들의 유해(遺骸)에다 입맞추는 경우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고상(苦像)에 입맞추는 경우가 있다. 어떤 신자들은 목자에 달려있는 십자가에도 기도를 끝마치면서 으레 입을 맞춘다.

이렇게 입을 맞추는 행위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또 언제부터 이러한 풍습이 있었는지 알아보자.

「성서 신학 사전」에 의하면 하느님께 흠숭(欽崇)을 표현하는 행위는 성서에 두가지로 나타나는데, 그 첫째는 「열드립」이요, 그 다음은 「입맞춤」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 「입맞춤」은 존경과 사랑의 표시이며, 인사하는데 사용하였다 한다. 그러니까 「입맞춤」의 유래는 구약시대부터 있었던 것이며, 예수님과 열두 사도들의 시대부터 이미 우리 그리스도교의 예전생활에 도입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제대에 입맞추는 뜻은 「제대는 예전상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상징」이므로 사제가 성당에 들어와 그리스도께 인사하는 것이다. 그 이후에 시대가 좀 지나서 교회는 제대 가운데에 순교자들의 유해를 모시고 그 유해에 존경을 표시하기 위하여 입맞춘다고 알아들게 되었다. 그리고 중세기 이후에는 미사 중에 사제가 여러번 제대에 입맞추게 되었는데, 이렇게 여러번 입맞춤으로 말미암아 입맞추는 근본 뜻을 오히려 흐리게 만들었다. 따라서 지난번 예전개혁에서는 그 횟수를 대폭적으로 줄여서 지금은 사제가 미사 시작하러 들어올 때와 끝나고 나갈 때만 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복음 성경은 그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은 그리스도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존경하는 뜻으로 입을 맞추며 십자가의 고상(苦像)에도 마찬가지다.

종이 위에 그려진 아버지의 초상화가 아버지 자신은 물론 아니지만, 아버지께 대한 사랑때문에 그 초상화를 존경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다루듯이, 나무로 만든 예수님의 고상에 대하여 우리 신자들은 즐겨 존경과 사랑을 표시한다. 그래서 때로는 그 앞에 머리를 숙여 절하기도 하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입을 맞춘다.

(가톨릭 센타 관장)

* 이주일의 미사 *

(1) 개회식

□입당송 야훼님 사랑은 땅에 가득하고, 그 말씀으로 하늘이 만들어졌도다. 알렐루야.

(2) 말씀의 전례

□제1독서 (사도행전 13 : 14. 43-52, 성서 P.296)
이방인들에게로 가다.

□증계송 ◎우리는 당신의 것, 당신 백성이여라, 기르시는 그 양떼이여라.

야훼님 좋으시다. 영원하신 그 사랑 당신의 진실하세세에 미치리라.◎

□제2독서 (묵시록 7 : 9. 14-17, 성서 P.568)

어린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어 생명의 샘터로 그들을 인도하시리라.

□알렐루야 알렐루야. 나는 착한 목자이니, 내 양들을 내가 알아보고 내 양들도 나를 알아보다도.◎

□복음 (요한 10 : 27-30, 성서 P.232)

나는 내 양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리라.

□부활 감사송

□신자들의 기도

1. 추수할 일군을 찾고 계시는 주여, 일할 수 있는 젊은 이들의 마음을 열으사 당신의 나라를 널리 퍼게 하소서. ◎주여...

2. 주여, 사제 성소를 후원하는 사업에 우리 모두 참여케 하여 풍성한 열매를 얻게 하소서.◎

3. 영원한 대사제이신 주여, 당신의 사제와 수도자들을 보우하시어 그들로 하여금 당신의 나라를 널리 퍼게 하소서. ◎주여...

+ 주여 비오니, 성소주일에 드리는 이 기도가 헛되지 않아 당신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주...◎아멘.

(3) 성찬의 전례

봉헌

성찬식

□영성체송 당신의 양들을 위하여 생명을 버리시고, 당신의 양떼를 위하여 죽으셨던, 착하신 목자 부활하셨도다. 알렐루야.

(4) 폐회식

교우들의 건강 관리 센터

영진약국

-조제약 전문-

김을태(베드로)

☎육교열 중앙시장동
(전화 ☎4577)

교형 여러분의 집

스타사진관

장남수(바오로)

●오거리동, 동아여관 앞
전화 ☎6094

☆추억의 집☆

푸른사진관

이준영(모세)

○전동, 성모병원 건너편

전화 ☎6059

□ 양 지 쪽 □



어 린 이

김 길 수

미국의 어느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이다. 중고품 T.V셀트를 팔려고 계약서까지 받은 부모들이 자기집 꼬마의 마지막 의견을 듣기위해 학교에 간 어린 꼬마를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어린 아들은 텔레비 과는 것을 보류하자고 제의했다. 이유는 내일 있을 야구중계를 보고 싶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아버지는 아들의 결정에 따를 것을 동의, 받았던 계약금을 되돌려 주었다.

오늘은 어린이날, 소꿉놀이 즐기던 어린시절의 추억이 그리워진다. 어린이는 어른들이 감히 생각지 못하는 커다란 이상과, 꿈과 미래의 소유자들이며 때문지 않은 순수한 감정과 착한 마음씨, 그리고 빛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영국의 속담에 「집안에 애들이 없는 것은 지구에 태양이 없는 거와 같다」라고 했다. 사실 어린이 없는 가정과 사회와 국가는 미래가 없는 집단이다. 새로운 장래와 희망은 어린이들의 숨결에 생여 성장하고 발전하기 때문이다. 어느 시인은 이리기를 어린이는 천상의 등불이요, 평화의 동산이며, 기쁨의 시내라고 말했다. 어린이들만이 이상을 받아들이기에 충분히 원숙해 있기 때문이다.

어른들은 이러한 어린이들과 함께 사는 것을 행복으로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어린이가 바로 천국이라고 표현하신 예수님은 「어른과 같은 어린제자」들에게 「어린이와 같은 어린」이 됨으로 천리의 사람이 된다고 역설했다.

어린이들이 이처럼 소중하고 보배로운 것은 뭉뚱하니 해도 착한 일을 할수 있는 깨끗한 천성 때문일 것이다. 어린이의 몸은 쇠의 몸과 같다는 와일드의 말은 거짓과 욕망, 부정과 불의를 갖고 있지 않다는 말이다. 천진난만하게 웃는 어린이의 얼굴은 웃음을 잃은 어른들에게 행복의 미소가 무엇인지 가르쳐 준다. 고요히 잠자는 어린이의 모습은 이(利)와 권(權)과 욕(慾)의 아귀다툼을 일삼는 어른들의 가슴에 평화의 교훈을 심어준다. 어린이가 어른들의 아버지란 말은 어른들에 대한 어린이들의 무언의 교육을 두고 한 말이다.

그러므로 어린이 현장 서두에서 어린이는 나라와 겨레의 앞날을 이어나갈 새사람들이므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귀히 여겨 옹고 아름답고 썩썩하게 자라도록 힘써야 한다고 언급한다.

오늘은 때마침 성소주일,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은 줄어드는 중 차대한 성소감회의 현 시점에서 교회는 어린이들을 어떻게 대접하고 있는지 혹은 단순히 어른들 육식의 희생물이 되지 않았는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성심여고 교사)

요심이 (42) 김병오 25.5



현대인의 필수 조건은 양서를 골라서 읽는 것이다. (T.2~7398) *성 바오로 서원

가톨릭 센타 프로그램 (판장 신부 박진량, 간사 안지은, 전화 ②3498)

- 매주 일요일 오후 3시...이사회 (성경, 성가, 진전 포크송)
- 매주 월요일 7시 반...매아리합창단
- " 월, 화, 목요일 7시 반...일본어 교실 영어교실 매주 월~목 7시
- " 목요일 8시... "목요일 밤에" (남녀 젊은이들의 대화)
- " 금요일 8시...레크레이션 (주최: 가톨릭 센터와 J.O.C.)
- 시민상담실-건강, 여성, 외국, 교육, 결혼, 신앙 등 매주 월~토 밤 8~9시

* 이주간의 성경 *

- 6(월) 독서 (사도행전 11:1-18, 성서 P. 291) 9(목) 독서 (사도행전 13:13-25, 성서 P. 296)
- 복음 (요 한 10:11-18, 성서 P. 231) 복음 (요 한 13:16-20, 성서 P. 241)
- 7(화) 독서 (사도행전 11:19-26, 성서 P. 292) 10(금) 독서 (사도행전 13:26-33, 성서 P. 297)
- 복음 (요 한 10:22-30, 성서 P. 232) 복음 (요 한 14:1-6, 성서 P. 243)
- 8(수) 독서 (사도행전 12:24-13, 5a, 성서 P. 294) 11(토) 독서 (사도행전 13:44-52, 성서 P. 298)
- 복음 (요 한 12:44-50, 성서 P. 240) 복음 (요 한 14:7-14, 성서 P. 243)

장외차 · 꽃상여 · 입판 입판부속 일체 구비

최 씨 관 집

◎ 교우들에게 특별염가 봉사 ◎

최 병 화 (그레고리오)
전주 남부시장 B동 87호
(전화 ⑥ 6691 교환85 번)

☆집필도장청부 ☆ 고급실크벽지 ☆

대동 페인트 상사

대동 지 업 사

● 동문 베거리(풍남동 1가 17)
전화 ⑤5986
임 도민고(정원)

선물용 케이크, 빵, 파자, 잡쌀떡 준비!

프 랑 스 제과

* 임 금 님 찻집 *

전주 전신 전화국 앞
● 제과 ⑤5011 찻집 ⑤5013
김 원 준 (야교버)

제 4 지구 6개 본당 소식

1. 교리교사 단합대회 및 야유회
일시 : 5월 12(일)요일. 장소 : 교산 대아리 저수지. 회비 : 300원.
※ 점심 문제는 본당별로 해결. 5월 12일 8시 까지 중앙성당에 집결.
2. 4지구 사회분과 회의
일시 : 1974년 5월 7일 화요일 오후 8시
장소 : 덕진성당 사제관 회의실
각 본당 사회부장 차장님들의 참석을 바랍니다.
3. 전라남북도성직자 친선 체육대회 (5월 7일(화), 해성중·고교 운동장)
많은 참관과 성원 바랍니다. 운동 종목 : 정구 (한일정구장)와 축구
4. 제 2회 「결혼강좌」 신청안내
대상 : 결혼 적령기의 남, 녀 (신자, 미신자, 차별없음)
강좌기간 : 5월 20일(월) - 5월 24일(금) 매일 저녁 8시 - 10시 : 10시간 코스
신청마감 : 5월 18일 밤까지
신청장소 : 가톨릭센터 접수실
참가비 및 교재대 : 700원 (가톨릭센터 회원은 500원)
※ 천주교 신자로서 수료증 소지자는 혼인참고를 면제받게 되어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② 3498로 문의 바랍니다.

[소]

[식]

(중양)

전화 ②2651 주임 신부 안복진
②3874 보좌 신부 박창석
사도 회장 이복

(복자)

전화 ②5238 주임 신부 오기훈
사도 회장 조성호

1. 주일학교 소풍 및 어머니날 행사
오늘 오전 9시 출발 (자모님 동반을 바라며)
2. 성소주일 행사 본당소속 신학생 부모님들은 오늘 주일학교 어린이들과 동행을 바랍니다 (위안회)
3. 중·고등 학생 릴레회 (5월 11일 오후 6시 30분)
4. 견진성사 준비 (6월 2일 성신 강림 주일)
① 신입 ~ 5월 20일까지 총무 수녀님께.
② 교리 ~ 5. 2~6까지
③ 교리 수강자는 참고 면제함
5. 사도회 릴레회 (오늘 공식 미사후)
6. 신용조합 통장 대조 (이달안에 대조 바람)
7. 전자 올겐 특별헌금
만원 : 익명 5천원 : 이상진 2천원 : 황화순
8. 어머니 합창단 총회 (9일<목> 금산사)
오전 9시까지 합동 배차장에 집합 (우천시엔 강당)
누계 201,500원
지난 주일 봉헌금 33,564원. 감사합니다.

1. 사도회 릴레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L. M 옥의행사 (5월 12일 공식미사후)
지참물 : 목구, 뱃세라, 도시락,
장 소 : 완산동
참가인원 : 행동단원 및 협조단원.
3. 하동교리 (매주일 공식미사후)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후원과 협조 요망.
지난주 성미 1말, 8되 누계 273말, 8되
지난 주일 봉헌금 12,525원, 감사합니다.

(서학동)

전화 ②2276 주임 신부 김영일
사도 회장 이거영

1. 성소주일 행사 (오후 3시 미사)
참석자 : 교리반 학생, 중·고등학생, 사도회 임원,
각 반장, 신학생의 부모형제.
2. 간담회 및 다과회 (오후 3시 미사후)
사도회 임원, 각 반장 및 신학생의 부모, 형제 참석
요망.
3. 사도회 릴레회 (간담회후)
4. 신용조합 통장 대조 (5월중으로 조합에 제출할것)
5. L.M. 옥의 행사 (넷째주일 : 상판)
행동 단원 및 협조단원들은 이점 유의해 주십시오.
지난 주일 봉헌금 9,267원. 감사합니다.

(노송동)

전화 ②7032 주임 신부 함승현
사도 회장 조해형

1. 안토니오 제속 형제 릴레회 (오늘 공식 미사후)
2. 노송 신용조합 릴레회 (다음주일)
3. 평일미사 시간 변경
아침 6시미사 : 화, 수, 목요일
4. 학생회 릴레회 (오늘 공식 미사후)
5. 예비자 등록 (교우들의 협조 바람)
6. 성소주일 특별헌금 (많은 협조 바람)
7. 노송성당 신축에 협조해 주신분 감사합니다.
만원 : 박윤규 만원 : 이덕호 9백원 : 하부근
5백원 : 김부자
74년 4월말 세입 세출 보고
세입 : 215,355원. 세출 : 181,191원. 잔액 : 75,368원
지난주 신축기금 26,400원 누계 1,203,422원
지난주 신축성미 2말 누계 162말
지난주일 봉헌금 12,790원. 감사합니다.

(전동)

전화 ②3222 주임 신부 범석규
사도 회장 송재진

1. 예비자 교리
매주 공식, 저녁, 수요일 오후 3시, 저녁미사후.
2. 일일교장 (김병호 선생님)
3. 미사시간 변경
다음주 저녁, 수, 토요일 미사 8시.
4. 유아세례 (오늘 공식 미사후)
5. 사도회 릴레회 (오늘 공식 미사후)
6. 교리반 소식 (12일 10시 : 성심학교 교정)
각 동태향 운동경기가 있사오니 많은 참석 바람.
(각 구역장님은 구역 교우분들의 많은 동원 요망)
7. 첫 영성체 아동모집 (매일 오늘 4시)
8. 자매회 릴레회 (12일)
9. L.M. 소식 (옥의 행사는 26일로 연기)
10. 성소주일 (특별헌금 있음.)
☆ 축 영명 (5월 14일)
축하식 : 12일 공식미사후. 장소 : 전동
마리아 중도 축일로써 본당 신부님의 영명 축일입니다.
신부님의 건강과 하시는 모든 일에 주님의 뜻이
함께 하시길 뜨거운 기구로 빌읍시다.
지난 주일 봉헌금 37,653원. 감사합니다

(덕진)

전화 ②8082 주임 신부 김종택
사도 회장 김종환

1. 덕진 본당 야외미사
일시 : 5월 5일 오전 10시
장소 : 덕진 영능 뒷편
본당 및 공소 교우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2. 미사시간 변경
월, 수, 금 - 오전 6시 화, 목, 토 - 오후 8시
일요일 - 오전 10시, 오후 4시, 8시
3. 신용조합 임원회 (다음주일)
임원들은 빠짐없이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4. 교무금 상황 (4월말 현재)
덕진동 - 39.4% 전당리 - 36% 금암동 - 31.7%
미산리 - 12.94% 팔복동 - 57% 동산촌 - 12.86%
송천동 - 30.19% 내동리 - 8.34% 총 - 32%
애령회 기금조성
지난주 성미 1되 누계 14되 성금 200원
지난 주일 봉헌금 5,845원. 감사합니다